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6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4(통30). 주 우리 하나님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름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여름 땀별과 장맛비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가는 한 그루의 나무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린이를 돌보아야 하는 어른이, 시민을 섬겨야 하는 이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경종을 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악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과 인정이 넘쳐 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빌4:6-7 ..... 인도자  
 ♣ 교 독 문 ..... 69. 이사야40장(2)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최문희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90(통412). 우리는 주님을 늘 ..... 다함께  
 성경봉독 ..... I. 눅10:30-35 ..... 박수민 학생  
 ..... II. 요4:31-38 ..... 권 순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사람 사는 길 ..... 김재홍 목사  
 ..... II. 거둠과 심음의 리듬 ..... 김기석 목사

특 송	.....	새교우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자신만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밥을 먹으려 할 뿐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결과의 기쁨만을 누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순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집회</b>
선교회 주관 예배	7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준우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손성현 전도사	박영실 선생	손여진 학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곽권희 권사

<b>7월</b>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윤성종 김정애 김윤정 이증자
	헌금위원	조병무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그 여름의 물난리

올림픽 때문에 나라 안이 온통 잔칫집처럼 들떠 있던 여름, 장마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장마가 물러가자 무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섬으로 물러왔다. 피서 인파로 섬은 만원이었다. 여름 휴가의 절정을 이룬 그해 8월 초순이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밤이 되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변했다. 밤새 섬을 뒤흔든 폭우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기세가 꺾였다. 그날 밤 나는 중산간 마을에서 지냈다. 며칠 동안 오지 마을에서 숙식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 내리는 폭우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새벽부터 텔레비전에선 섬 안의 물난리에 대해 방송을 내보냈다. 내가 살고 있는 성산읍 쪽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속보가 나왔다. 필름들이 걱정되어 주인집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질 않았다. 그 옆의 가갯집도 불통이긴 마찬가지였다.

채널을 바꿔가며 방송을 지켜보았다. 이번 집중호우는 서쪽보다 동쪽에 더 많이 내렸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도 침수됐다는 보도만 나올 뿐, 피해 상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

아침 시간이 지나자 빗줄기가 누그러졌다. 서둘러 짐을 챙겨 제주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해보니, 집으로 가는 버스는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되어 있었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아탔다. 도중에 다리가 끊겨 삼십 분을 걸었다. 마을 입구의 다리도 끊어져 있었다. 물난리로 마을 사람들이 밤새 고생한 흔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었다. 다행히 마을 사람 중에 희생자는 없었지만 소, 돼지 등 가축들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이 떠내려갔다. 특히 내가 세들어 사는 집과 앞집이 큰 피해를 입었다. 마을이 들어선 후 처음 맞는 물난리인데, 우리 집은 지붕까지 물에 잠겼다고 했다.

주인 형님네는 잠을 자다가 물난리를 만났다. 어둠 속에서 두 아이를 목마 태우고 간신히 탈출했다고 한다. 그나마 일가족이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물에 잠긴 쌀을 마당에 널고 있던 주인은 내가 외박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밤새 겪은 물난리 얘기를 해주었다.

방문을 열어보니 책상 위까지 물이 들이쳤던 흔적이 선명했다. 벽은 진흙투성이고 방바닥에는 아직도 흙탕물이 흥건했다. 당장에 팔을 걷어 붙이

고 흠탕물부터 퍼내었다. 사용하지 않는 인화지, 필름, 암실 장비들이 밤새 물에 잠겨 있었다. 사진이나 필름들은 진흙투성이였고, 아끼는 책들은 물에 불어터져 있었다. 확대기 하나만 무사할 뿐 모두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가을 전시회에 대비해 왕창 구입해놓은 인화지도 다 못쓰게 되었다. 가을 전시회에 쓸 필름들만 챙겼다. 그리고는 옆 동네로 가서 필름에 묻은 진흙을 씻어냈다.

값비싼 필름일수록 필름에 난 상처가 더 심했다. 조심스럽게 씻어내도 절반은 버려야 했다. 삼 년 넘게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이제는 소용도 없는 필름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마음만 아플 것 같아 서둘러 버리고 말았다.

마을 이장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나왔다. 나는 인화지며 필름, 암실장비, 책 등이 물에 젖어 다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장은 사진이야 또 찍으면 되지만 주민들 끼니가 당장 걱정이라고 했다. 농기계나 가축 피해 파악하는 일만으로도 골머리가 아프고 자기 집 젖소가 두 마리나 떠내려갔는데도 찾아볼 시간이 없다고 풀죽은 목소리다. 그리고는 저녁 지을 양식이 물에 잠겨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말을 남기고 다른 집으로 갔다.

주인집 형님도 밥벌이도 안 되는 그딴 것들이야 또 찍으면 그만이니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무안을 준다. 마을 사람들에게 배상받을 방법을 물어보았으나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을 주민들은 배상을 받았지만, 마을 주민이면서도 나는 라면 박스 하나조차 받지 못했다. 면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피식 웃으며 이장한테 가보라고 떠넘겼다.

밥벌이가 되지 않는 일에 매달려 영혼을 바치는 사람들, 주위의 냉대와 비웃음에도 우직하게 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그런 일은 팔자 좋은 사람이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으로 여기는 게 세상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삶을 판단한다. 다른 생각으로, 다른 이상을 위해 살아가며, 다른 것을 꿈꾼다.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내가 궁금한 모양이다. 제주 토박이들은 내가 언제 섬을 떠날지 궁금해한다. 밥벌이도 안 되는 일에 매달려 아직도 섬을 안 떠났느냐고 묻는다. “어떻게 지내냐?” “잘 놀아요.” “아니 뭘 먹고 사느냐니까?” “이슬 먹고 살지요.” “혈색 좋은 걸 보니 밥벌이가 되는 모양이지?” “이슬만 먹어서 그래요.” 동문서답하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된다. 설명되지 않는 생활에 대해 친절하게 얘기해보았자, 상대방 머리만 복잡해진다. 그러니 나의 생활 방식은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비밀이 되어버렸다.

- 김영갑,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중에서

##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방문성 박혜경 방 준 방 민 정재정 손성현 김일랑 이은옥 김인걸  
 문영혜 정복순 최종원 김준우 우순덕 원인해 안종일 정현주 홍복선  
 조관행 홍선희 배근수 김금순 오진훈 노순옥 전해리 김지호 이성운  
 김혜영

### 월정헌금:

김윤정 박범희 박미영 박준희 이기분 왕수명 윤주원 최윤선 이동천  
 장재영 김재영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김현주 장석원 임 영 정경례  
 이봉옥 서지은 류건형 이주은 문홍일 무명

### 감사헌금:

윤은식 황선희 조병무 송양진 김용진 박효선 김종락 박영신 김용원  
 한상의 정영선 방극숙 박경선 무명9

### 녹색꿈헌금:

정완수 박영희 무명

### 생일헌금:

박병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정두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서원금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박옥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송의섭	정선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김정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명자	황선희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수진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정현숙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냉난방 현금** : 오늘 예배 중에 냉난방 현금을 봉헌합니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4남선교회와 6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김준우 목사가 '기후재앙의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합니다.
3. **기획위원회** : 오후 1시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4. **수양회 참가 신청** : 선교회별로 수양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청파산악회** : 10일(토) 남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오전 10시 30분 남산도서관 앞에서 모입니다.
6. **새 책** : 김기석 담임목사의 새 책, 『삶이 메시지다』 (포이에마 출판사)가 나왔습니다.
7. **신앙실천** : 새교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3명 이상의 새교우와 인사를 나누시고 이름을 외워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다음 주 : 가버나움 속)

\* 설거지 봉사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다음 주 : 박용진 김용원 정희은)

###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